

## 인도네시아 2018:

수하르토 퇴진 후 20년, 일상화된 선거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서지원\*\* · 김형준\*\*\*

### 국문초록

2019년 대선과 총선을 목전에 둔 2018년은 정치적 변동을 야기할 잠재력을 가진 해였다. 이러한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 정치에서는 뚜렷한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존의 정치 행위자들이 기존의 환경에서 기존의 방식에 맞추어 행동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조코위 대통령은 엔우와 이슬람지도자협의회의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그에 대항하는 프라보오 후보는 억만장자 정치신인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두 부통령 후보는 이슬람과 금권이라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요소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018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루피아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직면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중 무역 분쟁,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촉발된 루피아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던 15,000루피아 선이 붕괴된 후 연말이 되어서야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었다. 환율 급락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유지됨으로써 경제 위기 국면이 진정될 수 있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사회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집계된 이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3970).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70322).

\*\* 주저자.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suhjiwon@gmail.com](mailto:suhjiwon@gmail.com)

\*\*\* 교신저자.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hjunkim@kangwon.ac.kr](mailto:hjunkim@kangwon.ac.kr)

래 가장 큰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토바 호수 여객선 전복과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에 직면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경제 불안이 정치적 문제로 전환되어 이슈화되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조코위 대통령과 집권 여당 연합은 현직 효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2019년 대선과 총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정치, 인도네시아 경제, 인도네시아 외교, 2019 인도네시아 대선, 루피아 약세,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 I. 들어가는 말

2018년 한 해 인도네시아는 각종 외신에 등장할 만한 특별한 일을 자주 겪었다. 1962년 이래 56년 만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동시에 개최된 아시안게임은 조코위(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오토바이 스텐트가 개막식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아시안게임은 자카르타 공항철도와 팔렘방 경전철 등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프라 시설이 국내외에 공개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새로 포함된 전통무술 펜카실랏(pencak silat)<sup>1)</sup>종목에서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총 31개의 금메달을 따내 중국·일본·한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아시안게임 이외에 인도네시아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건사고로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7월과 8월에는 TV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의 흥행 이후 인천에서 전세기 직항편이 운행되기도 했던 롬복 섬에서 규모 7.0에 달하는 강진을 비롯한 네 차례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여

1) ‘폰착실랏’이 맞는 발음이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펜카실랏’이라는 이름으로 연맹 등이 결성되어 있다.

510명 이상이 사망하고 4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IFRC 2019a). 9월 말에는 지진과 쓰나미가 중부술라웨시의 팔루와 동갈라를 덮쳐 2,830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700명 이상이 실종된 채 남아 있다(IFRC 2019b). 12월 말에는 순다해협에서 일어난 해저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발생해 437명이 사망했다. 국가방재청(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에서 연말에 발표한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총 사망자 수는 4,231명으로서, 2007년에 방재청이 설립되고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자연재해 이외의 대규모 사건사고로는 6월의 토바 호수 여객선 전복 사건과 10월의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 사건을 들 수 있다. 사모시르 섬을 향하는 도중 토바 호수에서 전복된 시나르 방운(Sinar Bangun)호는 무허가로 운행되던 여객선으로서 승선가능인원이 60명이었지만 사고 당시 190명 내외의 인원과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실려 있었으며, 이 중 재빨리 탈출한 선장 등 21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승선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appler.com 2018). 10월 말에는 자카르타에서 이륙하던 라이온에어 항공기가 몇 분 후 추락하여 탑승 인원 189명 전원이 사망했다.<sup>2)</sup>

2018년은 경제위기로 촉발된 반대 시위와 폭동 등으로 30년 넘게 대통령직을 지켜 온 수하르토가 해야한 격동의 민주화 20주년을 기록하는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각종 재해와 사고 역시 정치적 후폭풍 없이 조용하게 수습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루피아화의 추락으로 인해 또 다른 경제 위기의 가

---

2) 사고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제기된 항공기 결함론에 대해 항공사 책임을 숨기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2019년 3월에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이륙하다 추락한 사고 이후 현재는 항공기 결함론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능성이 대두되었으나 결과적으로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5.07%보다 높은 5.17%를 기록했다.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정당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내내 이어진 선거운동으로 바빴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민주주의가 경쟁적이고 예측 불가능함을 보여 주는 증거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과 선거민주주의가 본궤도에 올라 루틴화·일상화되었으며, 충분한 회복력(resilience)을 갖게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II. 2018년 인도네시아 정치

2018년 내내 인도네시아 정당들은 선거운동과 그 준비에 바빴다. 2018년 2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총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14개 전국정당과 4개 지역정당의 명단을 발표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각각 3,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서부·중부·동부자바 3개 주(provinsi)를 포함한 17개 주의 주지사, 그리고 39개 시(kota) 및 115개 도(kabupaten)를 이끌어 갈 기초단체장 154명을 선출할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이어졌다. 곧이어 7월부터는 2019년 4월 17일에 동시 실시될 총선과 대선 후보 명단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다. 2019년을 앞두고 특별히 새로운 정치적 의제가 등장하지는 않았으며, 이슬람의 정치적 부상 및 돈과 정치의 연계라는 두 가지 오래된 문제가 주목받았다.

### 1.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인도네시아의 지자체장 선거에 대해 학자들은 대개 공무원, 기업

가 등 지역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선거운동 자금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치러진다고 설명한다. 후보들을 지명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지만,<sup>3)</sup> 후보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지지정당을 적게 확보한 후보들이 다수 정당의 지지를 받은 후보에 맞서 선거에 승리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Aspinall and Wawan 2017; Buehler 2016). 정당의 연합은 각 지방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대립하는 정당들이 지자체장 선거에서 연합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한편 원외의 이슬람주의 운동 세력은 민선 초기부터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며 ‘샤리아 조례’를 이끌어내는 데에 활발한 역할을 해 왔지만, 직접 지자체장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일은 드물었다(Buehler 2016).

2018년 인도네시아 지자체장 선거도 기존의 구도에서 크게 탈피하지 않은 가운데 뚜렷한 승자 없이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자 의회 제1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중부 자바의 간자르 프라노오(Ganjar Pranowo) 주지사가 현직 수성에 성공했으나 서부·동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했다. 투쟁민주당이 그간 지켜 온 서부칼리만탄 주지사직도 다른 진영으로 넘어간 데다 지지 후보 17쌍 중 겨우 4쌍만이 당선되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민주당(PD)과 대선에 출마한 프라보오 후보의 정당인 그린드라(Gerindra)당의 지지 후보들도 각각 4쌍, 3쌍씩만 당선된 반면, 소수 정당인 나스뎀(Nasdem)당의 지지 후보는 11쌍, 국민수권당(PAN)은 10쌍, 하누라(Hanura)당은 9쌍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보면 주지사 선

3)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해당 단위 의회 의석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나 지역의회 선거에서 25%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한다. 2015년부터는 무소속 후보도 지자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 6.5%에서 10% 사이에 달하는 숫자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등 요건이 대단히 엄격하다. 2018년 선거에서 선관위 심사를 통과한 무소속 후보는 8쌍에 불과했다.

거는 소수정당의 승리이지만, 자당 소속 후보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유력 정당과 인기 후보를 유연하게 지지하는 소수정당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Karina 2018).

소위 ‘212’ 운동이라고 불리는, 2016년 아후(Ahok)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이슬람주의 운동 참여자들 중 일부는 2018년 지자체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시도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212’ 운동을 등에 업고 동부자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라 낄라 마탈리티(La Nyalla Mattalitti)의 도전이 좌절된 이후 널리 알려졌다. 라 낄라의 좌절을 언론에 폭로한 ‘212’ 운동가는 그린드라당이 후보 지명의 대가로 400억 루피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린드라당은 ‘212’ 운동이 추천한 후보 5쌍의 지명을 모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동부자바에서는 ‘212’ 운동이 적대시하는 투쟁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했다(IPAC 2018a).

4,8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주이자 이슬람주의 세력이 강한 지역인 서부자바의 주지사로는 반둥 시장 출신의 건축가 리드완 카밀(Ridwan Kamil)이 당선되었다. 그린드라당과 변영정의당이 내세운 후보는 2위에 그쳤지만, 이것을 두 정당의 패배로 해석할 수는 없다. 두 정당의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개표 결과 28.7%를 득표하여 1위와 5%도 차이나지 않는 2위로 성큼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 운동 후반에 가동된 변영정의당과 이슬람주의 운동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리드완 후보는 다원주의자 이미지를 벗고 보수적 이슬람 진영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이슬람 배경을 가진 인물을 부지사 후보로 영입했고, 자신이 아후 반대 시위에 기부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IPAC 2018a; Warburton 2018).

2018년 단체장 선거에서 눈에 띄는 승자가 있다면 세 번의 도전 끝에 동부자바 주지사로 당선된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Khofifah

Indar Parawansa)를 들 수 있다. 그는 주지사직에 선출된 민선 지자체장 시대의 두 번째 여성후보이다. 동부자바에서 세력이 강한 전통주의 이슬람 단체 나흐다툴 올라마(Nadhlatul Ulama, 엔우)의 여성단체 무슬리맛 엔우(Muslimat NU)의 지도자이기도 한 코피파 주지사의 당선은 와히드 전 대통령의 조카인 사이풀라 유습(Saifullah Yusuf) 주지사 후보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조카인 푸티 군투르 수카르노(Puti Guntur Soekarno) 부지사 후보에 대항하여 얻어낸 성과로서, 여성이 정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정치 가문의 후광을 입어야 한다는 통념을 깬 것이기도 하다.<sup>4)</sup> 동부자바에서는 2018년 선거에서 주지사 이외에도 5명의 여성후보가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어 현재 기초단체장 38명 중 9명이 여성이다.<sup>5)</sup> 2018년 단체장 선거는 이슬람 정치의 부상과 여성의 활발한 정계 진출이 나란히 갈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2019년 총선과 대선

전국단위와 광역단위, 기초단위 의회 의원을 선출할 2019년 총선의 투표용지에 올라간 정당은 모두 16개로 정리되었다.<sup>6)</sup> 현재 원내 정당인 10개 정당 - 2014년 득표율 순으로 투쟁민주당, 골카르

---

4) 최초의 민선 여성 주지사인 라투 아툿 초시아(Ratu Atut Chosiyah)는 반튼(Banten) 지역 유력자의 딸로서 2001년에 반튼주의 간선 부지사로 선출된 후 2006년의 직선제 선거에서는 주지사로 당선되었다가 현재는 부패 혐의로 복역하고 있다. 아툿 주지사와 반튼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Okamoto and Hamid(2008)를 참조. 현직 동부자바 여성 기초단체장 9인 중 5인도 전직 단체장의 아내, 여동생 등 가문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다(Nurul 2018).

5) 전국적으로 2018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전체 후보의 8.9%, 여성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의 9.2%이다(Ella 2018; Nurul 2018).

6) 지역정당의 선거 출마가 특별히 허용된 아체에서는 4개 지역정당이 출마 자격을 얻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전국 및 지역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은 전국 34개 모든 주와 각 주 기초단위의 절반 이상에 지부를 둔 전국정당이어야 한다.

(Golkar)당, 그린드라당, 민주당, 국민수권당, 국민각성당(PKB), 번영정의당, 통합개발당(PPP), 나스뎀당, 하누라당 - 이외에 4개 신당 - 퍼린도(Perindo)당, 연대당(PSI), 가루다(Garuda)당, 복무(Berkarya)당 - 이 2월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통합정의당(PKPI)과 월성당(PBB) 등 2개 원외 정당이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총선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sup>7)</sup> 특정 인물 중심의 신당이 난립하여 정당체계가 파편화하는 흐름이 여전한 가운데, 2019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4%로 높아진 봉쇄조항이 정당의 숫자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sup>8)</sup>

2019년 대선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조코 위도도 후보와 프라보 오 수비안토 후보 2인의 대결로 치러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코위 대통령은 소속 정당인 투쟁민주당을 비롯해 나스뎀당, 골카르당, 국민각성당, 하누라당, 통합개발당 등 총 6개 정당의 지명을 받았으며, 원외 정당 중에는 통합정의당과 퍼린도당, 연대당, 월성당의 지지를 받았다. 프라보오 후보는 자신의 정당인 그린드라당 이외에 번영정의당, 국민수권당, 민주당 등 총 4개 정당의 지명을 받았고, 원외 정당인 복무당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지만 개별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있었으며, 당장 총선에서의 원내 진입이 더 급한 처지인 정당들은 자신의 정당 소속도 아닌 대선 후보의 지지 활동보다는 총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7) 퍼린도당은 미디어 기업인 MNC 그룹의 소유주 하리 타누수디보(Hary Tanoesoedibjo)가, 복무당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아들 '토미'가 창당했다. 연대당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며 샤리아 조례 반대, 일부일처제 지지 등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가루다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다. 수하르토의 큰딸인 '투툿'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있는 정도이다.

8) 정당이 의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율은 2009년 총선에서는 2.5%, 2014년에는 3.5%였다. 2019년 4월 총선에서 신생 정당과 원외 정당은 모두 원내 진출에 실패했으며, 원내 정당 중에는 하누라당만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다만 하누라당은 2%도 득표하지 못했기에, 하누라당의 실패와 봉쇄조항의 상황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2018년 8월의 대선 후보 등록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부통령 후보 지명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슬람지도자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의 의장이자 엔우의 의장이기도 한 마루프 아민(Ma'ruf Ami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마루프 아민은 청년시절부터 줄곧 엔우에서 활동해 왔으며, 자카르타 시의원(1971-82)과 국민각성당 소속 국회의원(1999-2004) 등의 공식 정치경력을 보유하고 있다(Fealy 2018). 또한 그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자문역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Mietzner and Burhanuddin 2018). 2016년 자카르타 ‘아혹’ 주지사의 종교모독 정국에서 마루프 아민은 이슬람 지도자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아혹이 종교모독을 저질렀다는 파트와(fatwa)를 냈고, 재판에도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마루프 아민과 보수적 엔우 인사들을 ‘빤짜실라 고취를 위한 대통령 직속 실무단위’에 임명하는 등(IPAC 2018a: 19) 정부 측으로 포섭하려고 했으며, 이는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까지 이어졌다.

엔우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슬람주의 진영의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획한 올라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조코위 대통령의 결정은 보수적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루프 아민은 중도 이슬람(Wasatiyyah Islam)이나 타종교와의 공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가 상정하는 중도가 아닌 ‘양극단’은 종교적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다원주의·세속주의 역시 포함한다(Ma'ruf Amin 2018). 자유주의·다원주의·세속주의가 이슬람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슬람이 배격해야 할 극단적 가치라는 사고방식은 이미 2015년에 그가 이슬람지도자협의회 의장으로서 발한 속칭 ‘세필리스’ 파트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Bruinessen 2018).<sup>9)</sup> 또한 그는 아흐마디아(Ahmadiya)와

9) 세필리스(sepilis)란 세속주의·다원주의·자유주의의 줄임말로, 물론 매독(sipilis)과 비

시아파 등 그가 ‘이단’이라고 여기는 종파 및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에 앞장서 왔으며, 종교간 대화에도 내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Fealy 2018). 마루프 아민은 아랍식 이슬람만을 정통으로 여기거나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난 칼리프 지배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관용’이나 ‘중도’같은 단어를 자유주의자들과는 꽤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한편 ‘212’ 운동에 참가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프라보오 후보에게 올라마 즉 이슬람 학자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프라보오가 지명한 후보는 억만장자 정치신인인 그린드라당 소속 자카르타 부지사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였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밀고 있던 민주당 소속 정치인 안디 아리프(Andi Arief)는 산디아가가 그린드라당의 연합 정당인 번영정의당과 국민수권당에 5,000억 루피아씩을 지불하고 부통령 자리를 ‘샀다’고 폭로했다(Cook 2018). 또한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산디아가 후보는 프라보오 팀이 2018년에 모은 공식 선거자금의 73%인 396억 루피아를 개인적으로 기부했다(Nurul 2019).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부와 권력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지만, 이처럼 정치신인이 힘들여 자신의 조직을 쌓는 과정도 없이 막대한 현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 부통령 후보에까지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코위 후보가 보수적 이슬람 진영에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프라보오-산디아가 후보가 선거운동본부를 조코위 후보의 우세 지역인 중부자바로 옮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2018년 하반기의 선거운동은 대체로 중도층과 상대방의 지지층을 공략하여 표를 확장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중위투표자를 겨냥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중도’와 ‘극단’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는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던 의제의 상당수가 결국에는 국

---

숫하게 들린다.

정에 수용될 수도 있다.

### 3. 정치폭력

5월의 수라바야 연쇄 폭탄 공격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주의 공격이 다시금 활발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연말의 시점에서 5월의 공격은 이슬람 국가(IS)를 지지하는 인도네시아 단체들의 연합인 JAD(Jemaah Ansharut Daulat)의 동부자바 일부 조직원에 의한 국지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2018년 5월 13일의 수라바야 교회 자살공격이 특히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온 가족이 공격에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동부자바의 JAD 조직원이었던 디타(Dita)는 자신은 차량 폭탄을, 각각 18세와 16세인 두 아들은 오토바이 폭탄을, 그리고 부인과 12세·9세인 어린 두 딸은 몸을 이용하여 수라바야의 교회 세 곳을 동시에 공격하는 계획을 성공시켰다. 같은 날 밤 수라바야 인근의 공업도시 시도아르조의 아파트에서 폭탄이 터져 디타의 친구인 안톤(Anton)의 아내와 딸이 사망했으며,<sup>10)</sup> 다음날 아침에는 다른 일가족이 두 대의 오토바이로 수라바야의 경찰 초소를 공격했다(IPAC 2018b). 인도네시아에서 혁명기 이후 최초의 ‘성공적인’ 여성 자살 공격자로 기록된 디타의 아내 푸지(Puji) 등의 사례는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남성중심적인 테러 예방책이나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한계를 드러냈다(Jones 2018). 2018년 라마단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각종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49명 이상이었으며, 이에 의회는 5월 말 테러 용의자의 구금 기간을 늘리고, 테러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만으로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며, 제한적인 경우 군부의 반테러 작전 참가를

---

10) 안톤은 폭발 후 현장을 덮친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허용하는 내용의 강화된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12월에는 파푸아의 고원 지대 은두가(Nduga)에서 서파푸아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세력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노동자 16명 이상을 사살하는 사건이 보고되었다. 조코위 정부는 파푸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타 지역보다 훨씬 높았던 유가를 타 지역 수준으로 규제하는 등의 경제 정책을 펼쳐 파푸아 민심을 얻으려고 했으나, 이러한 정책이 무장 독립투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은두가 학살은 12월 초 파푸아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로 전국에서 500명 이상이 체포된 가운데 일어났으며, 이에 따른 군부의 작전으로 다수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은두가 학살은 저장도 무장분쟁이 계속되는 파푸아의 안보 환경이 조코위 정부 하에서도 큰 변화를 겪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 Ⅲ. 2018 인도네시아 경제

‘15,000루피아’는 2018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는 지시계였다.<sup>11)</sup> 2018년 5월, 미화 1달러에 대한 환율이 14,000루피아 선을 넘어서면서 고조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10월 15,000루피아에 이르자 극에 달했고,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거론되며 경제위기 담론을 확산시켰다. 11월 환율이 15,000루피아 아래로 떨어지자 위기감 역시 완화되었고, 12월에 접어들어 14,000루피아대 중반에서 안정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경제위기 담론 역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sup>12)</sup>

11) 경제와 관련된 본문 내용은 다양한 보도 자료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직접 인용을 제외하고는 출처 표기 없이 서술될 것이다.

12) 연말의 추세는 2019년 1월로 이어져 환율이 13,000루피아대로 잠시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1997년 시작되어 장기간 인도네시아인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경제위기의 핵심 상징이 환율이었음을 고려해보면 루피아 약세, 특히 2000년대 이후 경험해보지 못한 15,000루피아 수준으로의 하락이 가져온 두려움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루피아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진정세를 동시에 경험한 2018년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과 대응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 1. 루피아 환율 동향

2018년 상반기, 특히 1/4분기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서지원·김형준 2018; 서지원·전제성 2017) 긍정적이었다. 연초에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는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했다. 2017년 4분기 GDP성장률 5.19%는 이전 분기보다 0.13% 상승한 것으로 2017년 성장률을 5.1%로 끌어올렸다. 2017년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16년보다 24% 증가한 11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非(비)석유·가스 부문의 흑자액이 204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인프라 투자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8월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민간소비 역시 증가하리라 예상되었다. 순항하는 경제는 빈곤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2018년 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2%까지 떨어진 빈곤율은 2018년 후반 10% 이하를 기록하리라 기대되었다. 긍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은 국제평가기관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서 무디스는 4월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BA3에서 BA2로 격상시켰다. 2017년 다른 신용평가기관이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승시켰음을 볼 때(서지원·김형준 2018: 161) 무디스의 평가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

난 몇 년 동안의 안정적 성장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거시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주도적인 가운데에서도 루피아 약세 추이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연초 달러당 13,500루피아 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환율은 2월부터 약세를 보여 4월에는 14,000루피아 선이 위협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앙은행은 루피아 약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천명했고 4월 말 중앙은행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한동안 소강상태에 놓였던 환율의 움직임은 7월 이후 약세로 이어

졌고 10월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15,000루피아를 거침없이 통과하면서 15,500선을 위협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견해를 반복하던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루피아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다. 언론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었고 정부정책과 인도네시아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론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긴장된 국면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1월 초를 지나며 루피아 강세가 감지되었고 12월에는 14,000루피아대 중반에서 환율이 움직였다. 위기 국면을 넘겼다는 안도감이 확산되자 경제적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시 대두되었다. 2018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루피아 동향에 따라 울고 웃는 상황이 전개된 환율의 해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 2. 루피아 약세와 중앙은행의 대응

루피아 약세가 지속되자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을 공언했고 4월 말 중앙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이후 루피아 평가절하 속도는 완화되었지만, 하락 추세가 멈추지는 않았다.

환율 불안이 이어지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다. 국제적으로 유포되던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자본유출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5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4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단행된 것으로써 이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7.7%에서 4.25%로 하락했었다.

5월 초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14,000루피아를 넘어선 환율

추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5월 30일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발표되었고, 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4.75%이던 기준금리는 4차례에 걸쳐 6.0%로 상승했다.

중앙은행의 행보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자본유출 가능성은 2018년 중반을 거치며 채권시장에서 감지되었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1월부터 6월까지 환매한 루피아 표시 국채 규모는 39조 루피아(28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보유 국채 비중은 1월 41%에서 7월 37.7%까지 낮아졌으며, 9월에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6.9%로 하락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자본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2018년 2월 역사상 최고점인 6,689를 기록한 주가지수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4월 후반 6,000선이 무너졌다.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의 환매가 가시화되어 그 규모가 1분기 17억 달러, 2분기 18억 달러에 이르



렸다(Tran Anh 2018).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외국 자본 이탈 조짐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서도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429조 루피아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18년 감소세로 돌아서서 1분기 108조 루피아, 2분기 95조 루피아, 3분기 89조 루피아로 축소했다. 2019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축소했다는 해석이 주도적이었음에도 이러한 감소세는 채권과 주식시장에서의 자본 이탈 조짐과 함께 위기감 고조에 일조했다.

교역 분야에서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보여줄 흐름이 감지되었다. 2017년 118억 달러 흑자였던 상품수지는 2018년 상반기 1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고 하반기에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sup>13)</sup>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가 인도네시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17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된 1분기 상황이 지속되어 3분기까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19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7년 1-3분기 적자액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본금융수지와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2018년 3분기까지의 국제수지 적자액은 125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2017년 말 1,300억 달러를 상회하던 외환보유고는 2018년 3분기 1,148억 달러로 감소했다.

루피아 약세로 고조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강력한 시장 개입 시그널을 보였고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기

---

13) 2018년 상품수지 적자액은 85억 달러에 이르렀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적자액은 85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비석유·가스 분야에서의 흑자액은 204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러한 행보는 대외경제여건에 취약한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선제적이고 단호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3분기까지 전개된 거시경제 흐름은 중앙은행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었고,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2018년 중반부터 루피아 약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던 정부 역시 3분기에 접어들어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다.

### 3. 루피아 약세와 정부의 대응

조코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었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와 출자 비율 확대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상기시키는 루피아 약세는 조코위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고, 특히 2019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 자본에 우호적인 태도는 야당의 강력한 비판거리로 자리 잡았다.

루피아 약세 과정에서 정부의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세가 꺾이지 않고 15,000루피아를 향해 나아가던 8월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행보가 빨라졌다.

첫 번째 대응 방향은 추가적인 외화 확보였다. 국영 석유공사, 국영 전력공사, 국영 알루미늄공사 등과 같은 우량 공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 조달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 공포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환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채 수익에 대한 세율 인하책을 발표했다. 이는 채권 수익에 대해 내국인에게는 15%, 외국인에게는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채권 환매를 제어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두 번째 방향은 수입 억제로서 전통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이용되었다. 정부는 재계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산품 사용을 촉진, 감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존에 계획되던 바이오디젤 첨가 비율 상향 및 사용 의무화 정책을 조기에 실행할 것이라 공언한 정부는 인프라 투자 유예를 통해 자본재 수입을 축소하리라 발표했다. 수입 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역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였다. 자동차와 화장품 등 천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7.5%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이 제시되었다. 수입 억제책은 개인을 대상으로도 적용되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구매 상한선이 건당 100달러에서 75달러로 축소되었다.<sup>14)</sup>

세 번째 대응책은 기업 외화 자금의 루피아로의 전환이었다. 정부는 외화 자금을 루피아로 환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책을 기업에 더욱 유리하도록 개정하리라 약속했다. 또한, 팜유, 석탄, 광물과 같은 원자재 수출업자에게 수익의 50%를 루피아로 환전해 은행에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재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서 상공회의소는 달러 수익의 40%를 루피아로 전환하도록 회원사에 독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 정책은 환율 15,000루피아 선이 붕괴함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불투명했지만, 그것이 외국 자본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이던 조코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를 보였음은 명확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11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경제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

14)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정부는 재계에 가격 인상 억제를 요청했고, 이는 기업에 의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식음료생산협회'(GAPMMI)는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수익마진을 낮추어 가격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정책에 호응할 것임을 공언했다(Annisa 2018).

#### 4. 제16차 경제개혁 패키지(Paket Kebijakan Ekonomi)

조코위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규제완화, 사업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업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 패키지는 2015년 6차례, 2016년 8차례 발표됨으로써 경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경제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2017년에는 한 차례에 걸쳐 패키지가 발표되었다.

환율 안정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발표된 제16차 경제개혁 패키지의 목표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외화 확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수출 증대 등이 주요 목표였으며 이전에 발표된 환율안정화 대책 역시 포함되었다.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조세감면 대상을 18개 분야로 확대했고, 소득세 면제 기간을 특별경제구역 투자의 경우 최대 20년으로 연장했다. 특별경제구역에서의 200-1,000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 역시 신설되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87개 분야를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보통신, 에너지·광물자원, 보건의료, 교통, 고용, 관광, 무역, 임업 등 8개 영역 54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 100% 지분투자를 허용했는데, 이를 통해 여론조사, 국외 해상승객 수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sup>15)</sup>

---

15) 경제개혁 패키지 발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5개의 업종(구근류 껍질 제거, 직물 염색, 직조, 인터넷 카페, 인터넷과 우체국을 통한 판매업)을 외국인 투자자유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 발표했다(Hendra 2018).

경제정책 패키지는 수입 규제, 관세율 인상과 같은 환율대책이 내포한 국수적, 폐쇄적 성격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시장 개방이라는 정책 방향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루피아 불안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조코위 정부는 천명하고자 했다.

## 5. 환율 안정화와 인도네시아 경제

2018년의 루피아 약세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여전히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구조임을 드러냈다. 미·중간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불안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자본유출과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루피아 가치의 하락을 촉발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4분기 이후 루피아 강세가 이어지고 14,000루피아대에서 안정화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상황을 1990년대 후반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제기하도록 한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펀더멘털이 이전보다 견고해져서 외부적인 불안 요소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1,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한 외환보유고였다.<sup>16)</sup> 이와 함께 자주 거론된 측면은 인플레이션이었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당시 루피아 환율 하락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했다.<sup>17)</sup> 반면, 2018년 인플레이션은 3.2%에 불과했으며, 월별로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88%-3.41% 상승함으로써 2017년의 3.81%, 2016년의 3.53%보다 오히려 더 낮은 추세를 이어

16) 1997년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170억 달러 내외였다.

17) 환율 급락이 시작된 1997년 후반기에 7.8%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은 1998년 58.0% 상승했고 1999년에는 24.0%에 이르렀다.

갔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환율 하락이 가져오는 공포감이 완화될 수 있었으며, 하락세가 진정되고 일시적인 안정세가 나타났을 때 경제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경제 안정화에 대한 믿음은 중앙은행이 2018년 4분기 상황에 기초하여 제시한 향후 전망에 잘 드러나 있다(Bank Indonesia 2019).

2018년 4분기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4분기 자본계정의 흑자 규모 확대는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반영한다. ... 국제수지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개선되리라 예상된다.

달러 당 15,000루피아 선 붕괴는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었고, 정부는 3분기를 거치며 전방위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4분기에 접어들어 환율 안정세가 나타났고 경제적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재부상했다.

2018년 4분기에 나타난 안정화의 징후로 인해 조코위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비판에 대응할 최소한의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선 정국을 뒤흔들 잠재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루피아 약세가 갖는 트라우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2019년의 환율 동향 역시 인도네시아 정치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중요한 풍향계로 작동하리라 예상된다.

#### IV. 2018년 인도네시아 외교 및 한·인도네시아 관계

2018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이 들고 나온 새로

운 지역개념인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었다. 2017년 일본 외무성이 제안한 개념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은 곧 호주와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Suryadinata 2018).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의 이름마저 인도태평양 함대로 바꾸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식화에 나섰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등 지역협력 전반에 인도태평양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쿼드’라고 불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라는 역내 4대 강국의 협력을 확장한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흐름에 배치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며, 중국을 협력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자유롭고 개방된, 그리고 포용적이면서 포괄적인’(free, open, inclusive and comprehensive) 인도태평양 협력을 지지한다는 2018년 1월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무장관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일련의 발언을 통해 인도태평양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해 왔다(Suryadinata 2018).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제안이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역내에 다수 존재하는 비민주 국가들을 소외시킨다는 점, 이미 역내 모든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기구와 회담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협력의 장을 또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Arifi and Endy 2018). 11월의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해양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Agnes 2018).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한 인도태평양 협력을 주장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협력이라는 현상유지를 지지하고자 하는 인도네

시아의 제안이 아세안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될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2017년에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후 계속 우호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 이미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바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18년 9월에 서울을 다시 국빈 방문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된 아세안 국가가 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의 환영식은 창덕궁에서 열렸는데, 청와대는 외국 정상의 환영식을 창덕궁에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조코위 대통령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sup>18)</sup> 또한 2018년에는 우스만 삽타 오당(Oesman Sapta Odang) 지역대표협의회(Dewan Perwakilan Daerah) 의장 등 인도네시아 의회와 정부 인사들이 다수 한국을 방문했으며, 광주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인도네시아 기초단체장 4인이 참가하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sup>19)</sup>

양국 간 대규모 방산협력인 KFX/IFX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도 한때 좌초의 조짐이 보였으나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IFX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방산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개

18) 조선일보 보도(신은진·이민석 2018)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보고르궁을 방문했을 때 조코위 대통령이 하도 자랑하기에 이번에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창덕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관저 중 하나인 보고르궁이 본래 네덜란드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였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특정 전통 왕국의 궁전을 사용하여 국빈을 맞이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인도네시아로서는 값을 도리가 없는 방식으로 행사 진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19) 한 나라에서 여러 명의 단체장이 함께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이 정보는 인도네시아 개발NGO 인피드(INFID)의 무기얀토(Mugiyanto)에게서 얻었기에 감사를 표한다.



발 비용을 들인 사업이기에 당장의 전망이 밝지 않아도 쉽게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Curie and Sezsy 2018).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개막식에 초청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친분이 있던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손녀인 푸안 마하라니 조정장관(부총리급)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하자고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sup>20)</sup>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중재자 역할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최근 한·인니 관계와 남북 관계가 동시에 진전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제안들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12월에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가 한국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등장한 광고 방영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케이팝(K-pop)을 인도네시아 내 문화 갈등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블랙핑크 논란은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서 (꼬마버스) ‘타요’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시간에 짧은 하의를 입은 블랙핑크가 등장하는 광고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제안이 1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시작되었다.<sup>21)</sup> 이 이후 방송위원회는 11개 방송사에 블랙핑크의 광고가

20) 북한을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은 아세안 전 사무총장인 싱가포르의 웅캥웅 대사 등 몇몇 인사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안된 바 있으나 이 안을 공식 제기한 것은 조코위 대통령이다.

21) 이 서명운동을 시작한 마이몬 헤라와티(Maimon Herawati)는 파자자란대학교의 신문방송학 교수로서, 블랙핑크의 광고가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며 선정적이어서 뽀빠지실라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이몬이 비판한 블랙핑크의 온라인 쇼핑몰 ‘쇼파’(Shopee) 광고는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방영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다.

미풍양속을 해칠 소지가 있으니 방영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블랙핑크 광고 방영 중단은 방송위원회가 공중과 방송에서 남성이 여성의 언행을 하는 것을 포함한 'LGBT 행위'의 금지를 지시했던 2016년의 사건과 더불어 규제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중문화를 보수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서 케이팝 문화는 앞으로는 비판의 대상으로서 '두들겨 맞는'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예상된다.<sup>22)</sup>

## V. 나가며

1998년의 경제위기와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쟁적인 선거민주주의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모두가 일정 궤도에 올라 일상화·안정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일상화·안정화라는 주장이 인도네시아가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가가 되었다거나, 인도네시아 경제가 투명하고 효율적·개방적인 체질로 거듭났다는 식의 평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유주의·다원주의·세속주의를 '극단'이라며 비판해 온 이슬람 학자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고, 그의 라이벌 프라보오 후보는 막대한 현금을 선거운동에 투입할 능력을 가진 기업인을 러닝메이트로 골랐다. 자유주의와의 거리두기는 소수자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돈 정치의 일상화는 선거의 근본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제의 보수화와 정치자금 문제는 둘 다 인도네시아의 선거가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경쟁적이다 보니

---

22) 여성 케이팝 그룹은 주로 노출과 춤 동작 때문에, 남성 그룹은 그들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여성적인 행위로서 'LGBT 행위'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받곤 한다.

나타난 현상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늘 자신보다 20% 이상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프라보오 후보를 경계하면서 방어적으로 부통령 후보를 선택했으며, 성실히 선거운동에 임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선거민주주의는 경쟁성이라는 핵심적 가치는 유지하되 돈 정치 등 건전하지 못한 측면까지도 포함한 채로 일상화·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미중 무역 분쟁,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촉발된 루피아 가치 급락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또한, 환율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난 권위적이고 국수적인 행보, 인프라 건설과 관련되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패 문제, 공공 부문 부채의 급격한 증가, 성장을 추동할 새로운 경제 영역의 부재 등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2018년 루피아 환율 변화의 추이처럼 인도네시아 경제가 외적 충격을 완화하여 흡수할 수 있었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는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과 인도보다는 낮을지라도 5% 초반대의 경제 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상화, 안정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 서지원 · 김형준. 2018. “인도네시아 2017: 빨짜실라의 귀환과 대선 국면의 도래.” 『동남아시아연구』 28(2): 147-180.
- 서지원 · 전제성. 2017.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 기반 다지기과 ‘정체성의 정치’의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7(2): 213-244.
- 신은진 · 이민석. 2018. “동대문서 옷 사고, 슈퍼주니어 만난 조코위 대통령.” 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021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0214.html) (검색일: 2019.03.13)
- Agnes Anya. 2018. “RI Invites China into IndoPacific.” *The Jakarta Post* November 15, p.1.
- Annisa, Sulisty Rini 2018. “Kendati Rupiah Melemah, Pengusaha Makanan & Minuman Tahan Kenaikan Harga.” *Bisnis Indonesia* October 01.
- Arifi Saiman and Endy M. Bayuni. 2018. “Indo-Pacific Regionalism Rises, May Need New Name.” *The Jakarta Post* November 6, p.6.
- Aspinall, Edward, and Wawan Mas’udi. 2017. “The 2017 Pilkada (Local Elections) in Indonesia: Clientelism, Programmatic Politics and Social Network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9(3): 417-26.
- Bank Indonesia. 2019. “Indonesia’s Q4/2018 Balance of Payments Surplus, External Resilience Maintained.” *Press Releases* February 08. [https://www.bi.go.id/en/ruang-media/siaran-pers/Pages/SP\\_211019.aspx](https://www.bi.go.id/en/ruang-media/siaran-pers/Pages/SP_211019.aspx) (검색일: 2019.03.01)
- Bruinessen, Martin Van. 2018. “Indonesian Muslims in a Globalising World: Westernisation, Arabisation, and Indigenising

- Responses.” RSIS Working Paper, No. 311, May 3.
- Buehler, Michael. 2016. *The Politics of Shari'a Law: Islamist Activists and the State in Democratizing Indo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Erin. 2018. “Indonesia’s 2019 Election Heats Up With Vice Presidential Picks.” *The Diplomat* August 15. <https://thediplomat.com/2018/08/indonesias-2019-election-heats-up-with-vice-presidential-picks> (검색일: 2019.03.13)
- Curie Maharani and Sezsy Yuniorrta. 2018. “Should Indonesia continue KFX/IFX program?” *The Jakarta Post* July 4, p. 7.
- Ella S. Prihatini. 2018. “Elektabilitas Perempuan Di Pilkada 2018 Meningkat.” *The Conversation* August 8. <http://theconversation.com/elektabilitas-perempuan-di-pilkada-2018-meningkat-101179> (검색일: 2019.03.13)
- Fealy, Greg. 2018. “Ma’ruf Amin: Jokowi’s Islamic Defender or Deadweight?” *New Mandala*, August 28. <https://www.newmandala.org/maruf-amin-jokowis-islamic-defender-deadweight> (검색일: 2019.03.13)
- Hendra, Friana. 2018. “Penyebab Pemerintah Batal Keluarkan Lima Bidang Usaha UMKM dari DNI.” <https://tirto.id/penyebab-pemerintah-batal-keluarkan-5-bidang-usaha-umkm-dari-dni-daAR> (검색일: 2019.03.03)
-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19a. “Emergency Plan of Action Operation Update. Indonesia: Earthquakes and Tsunami - Lombok. January 14.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MDRID013eu9\\_0.pdf](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MDRID013eu9_0.pdf) (검색일: 2019.05.22)

- \_\_\_\_\_. 2019b. "Emergency Plan of Action Operation Update. Indonesia: Earthquakes and Tsunami - Sulawesi." April 30.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Sulawesi%2314.pdf> (검색일: 2019.05.22)
- IPAC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2018a. "After Ahok: The Islamist Agenda in Indonesia." IPAC Report, No. 44, April 6.
- \_\_\_\_\_. 2018b. "The Surabaya Bombings and the Future of ISIS in Indonesia." IPAC Report, No. 51, October 18.
- Jones, Sidney. 2018. "How ISIS Has Changed Terrorism in Indonesia." *The New York Times* May 22. <https://www.nytimes.com/2018/05/22/opinion/isis-terrorism-indonesia-women.html> (검색일: 2019.03.13)
- Karina M. Tehusjarana. 2018. "Smaller Parties Make Biggest Gains." *The Jakarta Post* July 10, p.1.
- Ma'ruf Amin. 2018. "Emergence of Wasatiyyah Islam: Promoting 'Middle Way' Islam and Socio-Economic Equality in Indonesia." *RSIS Commentary*, No. 182, November 2.
- Mietzner, Marcus, and Burhanuddin Muhtadi. 2018. "Explaining the 2016 Islamist Mobilisation in Indonesia: Religious Intolerance, Militant Groups and the Politics of Accommodation." *Asian Studies Review* 42(3): 479-497.
- Nurul Fitri Ramadhani. 2018. "E. Java Sees Notable Gender Shift Post Election." *The Jakarta Post* July 5, p.4.
- \_\_\_\_\_. 2019. "Sandiaga Shoulders Prabowo's Campaign." *The Jakarta Post* January 3, p. 1.
- Okamoto Masaaki, and Abdul Hamid. 2008. "Jawara in Power,

1999-2007.” *Indonesia* 86: 109-138.

Rappler.com. 2018. “Di Balik Tragedi Tenggelamnya KM Sinar Bangun Di Danau Toba.” July 3. <https://www.rappler.com/indonesia/berita/205377-fakta-tenggelam-kapal-sinar-bangun-danau-toba> (검색일: 2019.03.13)

Suryadinata, Leo. 2018. “Indonesia and its Stance on the ‘Indo-Pacific’.” *ISEAS Perspective*, No. 2018-66, October 23.

Tran Anh. 2018. “Foreign Investors Withdraw from Regional Stock Markets to Flock to Vietnam.” <https://e.theleader.vn/oreign-investors-withdraw-from-regional-stock-markets-to-flock-to-vietnam-1546183195338.htm> (검색일: 2019.03.03)

Warburton, Eve. 2018. “West Java’s 2018 Regional Elections: Reform, Religion, and the Rise of Ridwan Kamil.” *ISEAS Perspective*, No. 2018-42, August 3.

(2019.03.25. 투고, 2019.04.12. 심사, 2019.04.29. 게재확정)

<Abstract>

**Indonesia 2018:**  
20 Years After the Fall of Suharto, Routinization of  
Electoral Democracy and Economic Growth

**SUH Jiw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IM Hyungj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18, Indonesia headed to the upcoming 2019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which had the potential to bring about drastic political transformations. In contrast to this expectation, Indonesian politics has been largely dominated by the existing political actors who acted in accordance with routine norms in their routinized environment, rather than undergoing discernable changes. President Jokowi nominated the chairperson of both NU and MUI as the vice presidential candidate, while his challenger, Prabowo, designated a billionaire novice as his running mate. The two vice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symbolically demonstrated that the key elements of Indonesian politics, Islam and money, are still working effectively.

In 2018, the Indonesian economy faced a sharp devaluation of the rupiah exchange rate. Although the central bank and the government have worked on various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 weakening



of the rupiah triggered by the US Federal Reserve's interest rate hike, US-China trade disputes, and economic unrest in emerging economies, it was at the end of the year only after the collapse of the Rp. 15,000 Maginot Line when the economy was able to regain stability. Despite the sharp depreciation of the rupiah, stable economic growth and inflation have helped calm deep anxiety about economic crisis.

In 2018, the Indonesian society witnessed frequent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tsunami. The largest number of casualties from natural disasters was recor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official counting of casualties. Large-scale accidents such as the overthrow of the Toba Lake passenger ship and the crash of the Lion Air plane were also reported. However, the economic, social and natural disasters have not been turned into serious political issues. This allowed President Jokowi and the ruling party to prepare the 2019 elections in a relatively favorable situation.

**Key Words:** Indonesian Politics, Indonesian Economy, Indonesian Foreign Policy, Indonesian Elections of 2019, Falling Exchange Rate of Rupiah, Korea-Indonesia Relations

